



국회산업자원위원 국회의원 _ 김덕규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더욱 힘써주길...

우선 귀한 지면을 빌어 한국지역난방협회 회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협회가 '집단에너지'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나 관심도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고 또 옮기기도 합니다. 저도 17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부의장을 하면서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산업자원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재선의원 시절이던 13대 국회에서 동력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정과 맘을 오롯이 쏟아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에 빠져있던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을 독려하며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공장 가동률을 사상 최고인 87.2%까지 끌어올렸던 일은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경험과 자긍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와 산업현장을 모두 겪으며 쌓아온, 작지만 소중한 저의 경험과 지식이 17대 국회 후반기 산자위 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중국·인도 등의 세계 석유 수요 급증이 이어지면서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은 물가상승과 산업활동 위축,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12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으로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유가 상승과 장기적으로는 석유의 고갈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이미 1972년에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1985년부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추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은 애초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에너지절약과 아울러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집단에너지사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역난방협회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난방협회는 출범한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동안 관련 산업체 상호간의 협력으로 신기술과 정보의 교류,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부의 집단에너지사업 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들이 더욱 협력하여 신기술력을 제고하고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서 에너지 절감, 환경공해 개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맘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로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른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